2강 자기 본위의 사상

(1교시)

■ 루쉰의 사랑과 희망

※ 학습목표
루쉰의 창작의 뿌리인 사랑과,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는 루쉰의 희망을 이해한다

▲ 창작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람이 적막을 느낄 때 창작은 탄생한다. 마음속이 깨끗할 때 창작은 탄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창작의 뿌리는 사랑이다."(『소잡감』중에서. 1927)

들뢰즈가 "욕망이 생산"이라고 말했듯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바꾸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런데 루쉰의 사랑은 개인의 욕망에 한정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개입해서 들어가는 적극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그의 사랑은 타인의 질병을 대신 앓아주는 것이다. 글쓰기를 무기로 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이것은 의사의 자의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의 병은 치유될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병은 완쾌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쉰은 사랑을 가지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싸워나간다.

▲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전사
「전사」라는 글에서는 리듬이 느껴지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가 느껴지는 강한 효과를 주는 글이라는 점에서 산문시를 뛰어넘는 산문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사는 없을까
아프리카의 원주민처럼 몽매하면서도, 새하얀 모젤총을 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녹영병처럼 무기력하면서도 대형 권총을 차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쇠가죽과 폐철로 만든 갑옷의 비호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의 있는 그대로에다가 무기는 야만인이 사용하는 투창뿐이다.
그가 무물의 진(無物의 陣)에 발을 들여놓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가 격식대로의 인사를 한다. 그 인사가 무기라는 것,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지 않는 무기라는 것, 많은 전사들이 그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 포탄과 마찬가지로 용사의 힘을 위축시키는 무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가지가지 깃발이 꽂혀 있고, 가지가지 아름다운 칭호가 수놓여 있다. 자선가, 학자, 문사, 장로, 청년, 아인(雅人), 군자……머리 아래에는 가지가지 옷옷이 잇는데, 가지가지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여 있다. 학문, 도덕, 국수(國粹), 공론(公論), 논리, 정의, 동방문명……
그러나 그는 투창을 치켜든다.
……(생략)……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마침내 그는 무물의 진중에서는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하였다. 그는 마침내 전사가 아니며 무물의 물(物)은 승자였다.
이런 곳에서는 검극(劍戟)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세상은 태평이다.
태평……
그러나 그는 투창을 치켜든다!(「이러한 전사」 중)

루쉰은 그의 무기인 투창처럼 투박하지만 정직한 문장들을 가지고 위선적인 세상과 싸운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태평하다. 루쉰의 '적막과 비애'는 여기에도 숨어 있는 것이다. 루쉰은 이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끝없이 투창을 던질 것이다. 그가 적을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희망과 절망과 허망함의 삼각관계

루쉰은 언어가 세계를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언어의 불충분함을 메우기 위해 말을 길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루쉰은 형체만 남는 앙상한 문장을 쓴다. 루쉰은 단문과 반어적 표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루쉰은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형식을 스스로 찾아내기 때문에 장르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실험을 시도한다. 따라서 문학이라는 형식의 잣대로 루쉰의 글을 읽게 되면 독자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루쉰의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기존의 문학적 관습에 대해 무장해제하고 접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루쉰은 그런 언어의 절망을 인정하고 그의 문장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로 한다. 이때, 그가 만들어내는 짧고 반어적인 문장들 속에서 여백과 행간은 그 자체로 더욱 복잡하고 치명적인 언어가 된다. 루쉰이 절망을 인정하는 방식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과 절망과 허망함의 삼각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응집이 되어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바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2강 신중한 희망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기 본위의 사상

(2교시)

■ 루쉰의 잡문과 자기 본위의 사상

※ 학습목표
루쉰의 글쓰기 방식과 중간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기 본위의 사상을 이해한다.

▲ 고도의 글쓰기, 잡문
루쉰은 짧고 반어적인 단문들을 즐겨 쓰는가하면, 끊임없이 짧고 직설적인 단평들을 한꺼번에 폭포처럼 쏟아내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의 문장은 잡스럽다. 그러나 '잡'은 저속하다거나 미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장르에 대해서 통달하고 온갖 종류의 지식과 교양과 세계관과 경험이 들어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잡문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잡문에서 쓰고 있는 것은 코 하나, 입 하나, 털 하나이지만, 그것을 합한다면 아마도 하나의 전체적인 형상이 될 것이다."(『준풍월담』)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단평을 쓰지 말라고 권고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예술의 궁전에 이처럼 번거로운 금령이 있다면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막에 서서 휘날리는 모래와 나뒹구는 돌멩이를 보며 즐거울 때에는 마음껏 웃고 슬플 때에는 크게 부르짖으며 성이 날 때에는 내키는 대로 욕하는 것이 설사 자갈에 맞아 온몸이 거칠어지고 머리는 깨져 피가 흘러 가끔 자기의 엉킨 피를 매만지면서 꽃무늬와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중국 문사들의 뒤꽁무니를 쫓아가 셰익스피어를 모시고 빵과 버터를 먹는 것보다 어찌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화개집』)

루쉰이 평생 서구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에 대한 투쟁을 동시에 해 나간 것처럼 그의 글쓰기 방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내용을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하고자 했다. 『신청년』의 두 가지 목표는 '과학혁명'과 '문학혁명'이었다. 또한 글도 일부의 사대부들이 쓰던 고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구어를 사용하자는 '백화문 운동'(중국의 언문일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루쉰 역시 이런 언어의 민주주의 운동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

▲ 자기 본위의 사상과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
"나는 늘 무슨 사물이나 전변하는 과정에는 어쨌든 중간물이 얼마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양해한다."

루쉰의 사상은 서양의 사상도, 전통적인 사상도 아니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 혹은 변증법적 대립의 문제는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계속 희망과 절망과 허망을 버무려서 새로운 종류의 희망을 발견해가듯이 사상도 스스로 발견해가는 자기본위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간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항적 대립의 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식적 항 자체를 균열하는 제3항(중간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루쉰에게 변증법이 있다면 그것은 헤겔의 변증법과는 다르다. '중간물이 있는' 운동의 과정은 목적론을 비켜서 있고 '사물이나 전변하는 과정'에 매개항(중간물)이 끼어들면서 목적을 와해한다. 루쉰은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고 사상을 번역하고 중국의 근대를 제작한 계몽가로 활약했지만 루쉰의 사상은 서구적인 것도 중화적인 것도 아니다. 루쉰이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통을 비판하면서도 서구적 계몽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루쉰이 중간적인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루쉰의 자기본위의 사상이다.

" '멸종'이란 말은 인간을 놀라게 할 뿐 자연계는 놀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은 무자비하다. 스스로 멸종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에 대해 자연은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고 멸종하게 내버려둔다." 『수감록』

루쉰은 인간은 늘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자연을 바라본다며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오히려 자연이라는 것,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객관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며 운동 자체가 필연적인 것이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필연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